

집단 지도·감독 과정을 통해 본 초기 놀이치료의 기법과 과제

TASKS AND TECHNIQUES IN THE INITIAL PHASE OF PLAYPSYCHOTHERAPY ILLUSTRATED BY GROUP SUPERVISION PROCESSES

홍강의* · 박민숙* · 남 민*

Kang-E M Hong, M.D., Ph D, Min Sook Park, M.D, Min Nam, M.D

요 약 : 정서적인 문제로 갑자기 산만하고 공격적인 문제를 보였던 8세된 국민학교 남아의 놀이치료 내용과 이에 대한 집단 지도·감독(supervision)을 자세히 기술함으로써 놀이치료 초심자가 초기 놀이치료에서 경험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과 과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놀이치료 초기에 초심치료가 흔히 범하는 잘못된 치료자 자신의 불안이나 성격적특성 때문에 놀이를 환아가 선택하는 방향으로 보다는 자신에게 의미있는 내용으로 이끌려하고, 너무 적극적이거나 무반응, 과잉간섭, 과잉 및 부적절한 해석, 현실과의 직접적 인계시도이다. 놀이치료 초기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치료자가 환아와 긍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임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환아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며, 환아가 이끄는 방향으로 놀이가 일어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치료자와의 관계를 통해 수정된 발달경험을 함으로써 문제와 갈등이 해결될 수 있다는 확신을 전해주어야 한다. 치료자는 놀이치료의 초기에는 모든 노력을 관계형성을 이루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중심 단어 : 정서문제아동 · 초기 놀이정신치료 · 치료자와의 관계형성.

I. 서 론

「놀이치료」, 정확히 말해서 놀이정신치료는 단순한 놀이도 아니요 또한 성인에 있어서의 정신치료와도 틀리다. 놀이치료를 처음 시도하는 초심자들은 어느정도 놀이에 가담하고 놀이를 어떻게 치료적으로 인용하느냐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놀이라는 활동자체가 자연스럽고 복합적이기 때문에(홍강의·조수철, 1984) 놀이치료중 아동과 아동이 놀이를 하게 되면 자연히 놀이에 가담하고 싶고 치료가 자신도 놀이에 빠져 버릴 수도 있다. 또 한편 성인이된 치료자가 놀이란

아동기의 것으로 돌려 버려서 다시 아동기적인 놀이에 몰입한다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으며 그냥 지켜 보게만 되는 수가 있고 놀이를 치료적인 의사소통 아동의 내면세계의 상징적 표출로써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기가 쉽다. 성인정신치료를 경험하고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 방법에서 방향을 바꾸어 놀이를 통한 의사소통과 치료적 개입을 해야되는 변화가 쉽게 일어나기란 어려운 것이다. 즉 정신치료자로 부터 놀이정신 치료자로서의 변신이 쉬운 것만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이 소아정신과 수련에 있어서 매우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소아·청소년정신과 Division of Child-Adolescent Psychia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Children's Hospital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본 논문은 놀이치료를 처음 배우고 또 놀이치료를 가르치기 위하여 소아정신과 수련의 초기에 놀이치료 증례를 택하여 전임의 3~4명을 집단 지도·감독하는데, 이 집단 지도 과정을 통해 놀이치료가 어떤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이며, 그 과정이 어떤가를 가능한한 그 현장성을 살려, 실제 놀이치료중에 일어나는 놀이내용을 기술하고 이에 대한 지도·감독한 내용들을 최대한으로 정확하게 기술함으로써 놀이정신치료의 초기에 필요한 기법과 초기에 치료적인 과제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II. 대상 및 연구방법

서울대학교 병원 소아정신과 외래를 방문한 8세 된 국민학교 1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 아동은 국민학교 시작하자 매우 산만해 지면서 밤에 놀래서 자주 깨는 증상까지 겹쳐서 환경적인 요인과 관련되어 정서적, 행동적인 문제가 심각했던 한 아동의 놀이치료를 자세하게 기술하고 이에 대하여 제 1 저자가 지도·감독(supervision)했던 내용을 그대로 기술함으로써 그 과정에 나타났던 놀이치료초기의 문제성과 혼란 오류 그리고 초기의 취해야 할 놀이치료자의 태도와 성취하려는 과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1993년 3월 초부터 처음 아홉번의 놀이치료시간의 내용을 기술하였는데 처음 4~5시간에서는 간단한 놀이의 내용과 과정을 설명하였고 여섯번째 session은 치료자와 환자의 놀이치료 과정을 비디오로 녹화하여 직접 그 내용을 살펴 보았고 일부 놀이치료내용을 그대로 문어체로 실었다. 서울대학 어린이병원의 소아정신과에서는 매년 3명 내지 4명의 소아정신과 전임의를 받아 1년동안 훈련 program에 의하여 소아정신과 수련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놀이치료 및 정신치료의 지도 감독이 두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는 개개인 마다 일주일에 한시간씩 외래 교수들에 의하여 개인지도 감독을 받고 들쭉는 소아정신과 전임의 전원이 모여서 제일 저자와 함께 순번적으로 증례를 발표하여 집단 지도감독을 받는다. 이것은 연속적 증례토의 시간(continuous case conference)에 이루어지며 집단 supervision은 물

론이지만 동료 전임의와의 의견도 자유로이 교환함으로써 또래 지도감독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III. 증례 요약

1. 인적사항

환아는 7세 10개월된 남아로 국민학교 1학년에 다니다가 담임 선생님의 권유로 내원 이후 현재까지 학교를 쉬고 있는 상태다.

2. 주 소

1) 6개월 전부터 아이가 갑자기 산만해졌다 2) 3개월 전부터 밤에 놀래서 자주 깬다.

3. 현병력

환아 엄마에 의하면 환아는 국민학교 1학년 여름방학인 1992년 8월 중순까지는 다소 소심하기는 했으나 꼼꼼하고 학교성적도 평균 80점 이상으로 비교적 공부도 잘하고 선생님 말씀도 잘들어 선생님도 환아를 귀여워 했다고 한다. 발병 4개월전에 환아 엄마는 가정의 경제적 형편상 하이퍼마켓(일종의 편의점)에서 밤 7시부터 11시까지 일을 하게 되었다. 그 시간에는 아빠가 환아를 돌보다 엄마가 저녁에 일하게 된 뒤에 환아 엄마는 아이가 안스러워서 출근할 때마다 용돈 1,000원씩 주었고 환아는 이 돈으로 오락실에 자주 가게 되었다. 엄마는 환아가 오락실 자주 가는 것을 싫어해 이 문제로 환아를 자주 야단쳤고 말을 안 들을 때는 아이를 자주 때렸다.

평소에는 환아가 말을 안 들으면 환아 엄마는 주로 매로 환이를 다스리곤 했다고 한다. 엄마는 번 돈으로 환아에게 십만원짜리 자전거를 사 주게 되었는데 환아는 자주가는 오락실에 자전거를 깜박 잊어버리고 두고 온 일이 있었다. 자전거 찾으러 환아엄마가 오락실에 가보니 이미 누군가 가져가 버리고 없었다. 큰 돈을 주고 산 자전거를 잃어버려 환아 엄마는 너무 속상해서 아이를 심하게 때려주고 목도 졸랐다. 이렇게 때려도 잤은 오락실 출입이 쉽게 고쳐지지 않자 엄마는 환아에게 식칼을 들이대고 '말 안들으면 죽이겠다'고 까지 협박했다고 한다. 환아 아빠가 집에 없을 때는 엄마는 환아에 대한 화를 참지 못해 환아를 더욱 심하게 때리게 되었다. 아빠가 집에 있을 때는 환아가 엄마말 잘

듣는 편이라 했다 환아 엄마에 의하면 자신은 화가 나면 조절하지 못할 정도로 가슴이 붙는다고 했다 처음에 엄마가 때릴 때는 환아가 말을 잘 들었는데 점차로 시간이 지날수록 말을 안듣고 엄마가 때릴 때는 ‘때릴때면 때려!’, ‘죽일려면 죽여!’ 하면서 아이가 극단적으로 엄마에게 달려들었다고 한다

1학년 2학기 개학을 하자 담임 선생님이 환아 엄마를 학교에 부르셔서 가보니 아이가 변했다고 하시면서 도저히 수업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다. 환아가 공부시간에 노래부르고 침뱉고, 손도 빨고, 침을 입주위에 묻혀서 주변이 새 빨강개 티 보기 흥했고 수업시간에도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돌아다니고 수업 끝난 뒤에도 학교에 가방을 뺀개쳐 잊어버리고 집에 오는 일이 자주 있었다 준비물, 그림물감 등 전부 버리고 오고, 너무 산만하여 아이가 정신나간 사람처럼 행동한다고 했다. 환아가 안되보이고 안스러워 보이니 병원에 가보라는 담임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환아 엄마가 소아정신과에 내원하게 되었다 병원에서 환아 엄마의 말씀은 환아가 이런 문제를 보이니 더욱 야단치게 되었다고 한다 환아는 집에서도 적대적인 행동이 심하여 학교에서와 비슷한 행동이 나타나게 되었다. 한번은 집안의 방문이 잠גיע 되어 엄마가 할 수 없이 드라이버로 방문을 열었는데 그 뒤로는 매번 환아는 방문을 그런 방법으로 열어 문이 망가졌다

1992년 11월 경부터는 밤에 5~6회씩 깨 자주우는 행동이 시작되었고 여러가지 문제가 겹치게 되어 병원에 갈 결심을 하였다

4. 발달력 및 개인력

환아 엄마는 임신을 미리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임신된 것을 알고 매우 기뻐했다고 한다 임신중 질병은 없었고 입덧도 거의 안했고 정신상태도 양호했다 예정일 7일전에 양수가 터졌는데 진통이 잘 진행되지 않아 ○○병원에서 제왕절개했다 환아 체중은 3.1Kg이었고 황달이 약간 있었으나 치료는 받지 않았다 환아 출생이후 엄마도 좋아했고 가족들도 매우 기뻐했다고 한다

생후 3개월까지는 모유먹었고 젖이 부족하여 그 이후로는 우유먹었는데 잘먹지는 안았고 현재도 편식 심하여 새로운 음식은 잘먹지 않는다 그러나

비교적 키우기 순한 아이였다 운동, 언어발달은 또래 아이들과 비슷한 시기에 했다 돌 지나고 금방 ‘엄마’ 부르기 시작했다 짹짹은 별로 안하고 낮가리기는 심해서 아빠 보고도 낮가려 울곤했다 엄마 흉내 많이내고 엄마 없이도 잘 놀았다 환아 엄마가 외출할 때 환아는 외가집에 자주 맡겨졌는데 환아는 외할머니 곁에서 잘 놀았다. 무서움은 많아서 나뭇잎이 흔들리는 모습에도 무서워했다 여섯살까지 곰인형을 가지고 갖고 손톱 물어뜯는 버릇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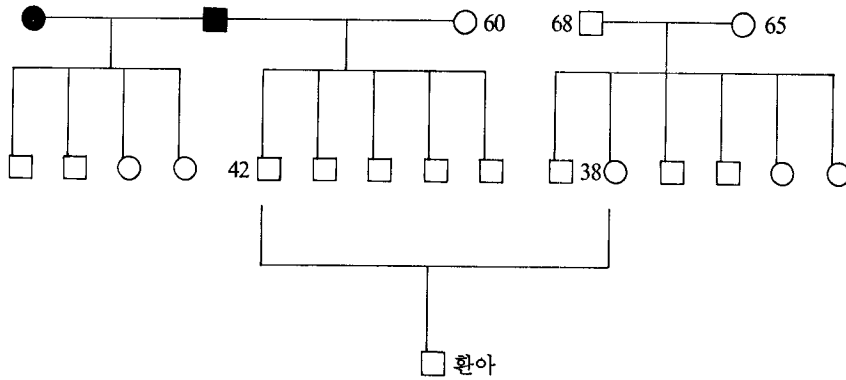
대소변가리기는 돌 지나고 부터 시작했는데 두돌경까지는 크게 무리없이 잘 가렸다 현재 밥먹는 태도는 아주 나쁘고 식탁 주위가 지저분할 정도로 더 늘어놓았다 공부태도는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뭐든지 쉽게하고 다른 아이들보다 떨어지는 것은 속상해 하고 욕심도 많았다 지금은 지나치게 산만하여 공부를 거의하지 못한다 심부름은 옛날에는 잘했는데 이제는 환아가 반항할까봐 두려워 엄마가 못 시킨다. 말대답은 안하고 질문이 많다. 집에 손님이 오면 좋아하면서 왔다갔다하고 손님이 가 실려고 하면 울고 못가게 한다 남의 집에 놀러가면 수줍어하지 않고 냉장고 문열고 들여다보고 왔다 갔다한다 거짓말은 옛날에는 안했는데 최근에는 수시로 하고 어떤 것이 진실인지 거짓말인지 엄마가 알 수 없다(예를 들면 우리 선생님은요 병 나서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아냐야 그건 뻥이야) 돈만 주면 오락실에는 가지만 도박은 없다

국민학교 입학해서는 공부잘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들었다. 친구가 싫다고 하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물러 갈 정도로 친구 사귀는 능력이 떨어진다

5. 가족력

환아의 친조부는 고향은 이북이고 인천에 정착해 살면서 계속 고향을 그리워하며 적응을 잘 못하신 편이라 한다 환아 아버지 국민학교무렵 집 나가서서 행방불명 되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신병이었던 것 같고, 집 나가신후 돌아가신 것 같다고 환아 엄마가 말씀하신다

환아의 친조모는 아이들에게는 자상하나 실지로는 아이들을 많이 돌볼 시간은 없었다 남편이 행방불명되어 자식들 돌보느라고 안해본 장사가 없을



정도로 고생을 많이 했다 환아의 문제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고있고 굶등 안해 본 것이 없다

아버지는 42세로 전문대 졸업하고 직장다니다가 적성에 잘맞지 않아서 그만두고 환아 내원 1년전부터 운전하시기 시작했다 종교는 천주교고 성격은 내성적이며 잘 참는 형이고 굉장히 우울한 사람이라고 한다 환아를 매우 이뻐하고 사랑스럽게 생각한다 환아도 아빠를 많이 따르는 편이라고 한다. 성장한 집안환경은 형제가 많아서 살기어려워 자라면서 즐거웠던 기억은 없었다고 한다. 형제들과의 관계는 경제적 문제 때문에 사이가 벌어져 왕래가 거의 없다

어머니는 38세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다니다가 중매로 남편만나 결혼했고 현재는 가정주부며 생활비 보태기위해 내원 6개월경부터 저녁시간에 시간제로 근무한다. 성격이 급하고 환아를 주로 체벌로 다스리며 환아가 어렸을 때는 자신의 말을 잘 듣다가 최근에는 반항하면서 전혀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한다 자신의 성장 환경은 불행하다고 느끼지는 않았는데 친정아버지의 성격이 환아 아빠하고 비슷하다고 하였다 환아가 이런 문제 생긴뒤부터 자신은 우울해졌고 아이가 이렇게 된 것이 전부 자신의 탓이라 생각한다고 한다

6.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검사실시일 : '93년 2월 3일

실시된 검사 : VMI, BGT, MFFT, KEDI-WISC, HTP, KFD, SCT, Rorschach, TAT

Rorschach, TAT, HTP 등 투사적 검사에서 내부에서 적개심과 공격성이 높은 수준으로 내재해 있어 보인다 부모로부터의 거부(rejection)나 유기(aba-

ndonment)에 대한 불안감이 많아 보인다(TAT에서 부모를 잃어버린 내용, SCT에서 엄마가 죽는게 슬프다) 문장완성검사에서 "우리 엄마는 나를 빵빵 때린다", "싫은 사람은 엄마", "엄마는 약속을 안 지킨다"는 표현을 비롯하여 TAT에서 "아들때문에 엄마가 죽고싶데요"라며 여러 장면에서 어머니와의 갈등관계를 그리고 있는 점으로 보아, 어머니의 신체적 처벌에 대한 분노가 깊히 내재되어 있어 보인다 면담시에 '우리 엄마가 내 손을 때렸다'며 손을 내밀었던 환아의 행동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다 모에 대한 강한 분노와 더불어 모와의 이별(separation)에 대한 예기불안을 보이는 등 모와의 관계에서 강한 양가적임(ambivalence)이 시사된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공감적인 관계형성에 어려움이 시사되며, Rorschach 검사에서 '사람' 반응이 전혀 없는 대신 '악마', '해골', '도깨비' 반응으로 대치되어 나타나고 있고, '말잘듣는 아이를 혼내주려 한다'며 반항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점도 환아의 사람에 대한 불신감, 거리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엄마 MMPI : 불안을 동반한 우울(depression with anxiety)

6. 진단적 놀이에서 본 정신상태검사 및 초진소견...①

나이와 비슷한 모습이며, 말라 보였다 전반적인 위생상태는 안좋아 머리카락은 감지 않은 상태여서 헝크러져 있었고, 얼굴도 씻지 않아 때가 묻어있고 손톱에도 때가 많이 끼어 있었다. 입주위는 침을 발라서인지 입술모양을 따라 빨강게 터 있었다 진단적 놀이검사 시에는 처음에는 덤프트럭을 가

지고 ‘이것 덤프트럭이예요? 심프트럭이예요?’ 물어보고 놀이가 지속적이지 못하고 매우 산만하고 적대적이고(oppositional) 공격적이었다-장난감 던지면서 ‘없어버릴거야!’란 말을 자주 썼다. 큰 자동차 가지고 물 집어넣고 장난감 붙여있는 곳에 들어가 마구 밟았다 치료자가 던지는 행동에 대해 약간 통제를 가하자 더욱 공격적이고, 적대적이 되어버렸다 치료자가 “엄마가 때린 적이 있지?” 물어보니 환아는 “당연이예요, 물론이지요” 하고 별 관심 없다는 듯이 대답했다 정리하는 것 시키자 그냥 장난감을 던져버렸다

환아의 엄마는 환아의 발병과정과 발달력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먼저 ‘환아가 이렇게 된대에는 자신의 잘못’이라고 죄책감을 느낀다고 말하고 눈물을 자주 흘렸다 병원에서 권하는 것 전부 하겠다고 하셨다

① 진단적 놀이에 대한 supervision : 트럭은 공격적인 것이지만 나이에는 걸 맞는 것이다 덤프는 버리는 것인데 환아가 뭔가 버리고 싶어하는 것 같다 대체적으로 공격적인 장난감은 총인데 이 환자는 덤프트럭 놀이를 택했다 전체적으로 환자의 놀이가 공격적임을 알 수 있다

놀이를 제제하거나 처음부터 치우는 것을 강요하는 것은 신경증적인 문제가 있는 아이들에게서, 특히 진단적 놀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장난감을 던져서 남을 해치거나 장난감을 망가뜨리면 통제를 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환아가 치료자와 관계맺는 방법이 엄마와 관계해 온 것과 비슷하다 공격적일 때 적절히 환아 자신이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치료자가 할 일인데 그때 치료자는 그 현상을 치료자가 본대로 기술하는 것이 좋다 예를들면 ‘○○가 화가 많이 나 있구나! 많은 아이들이 화가나서 장난감을 던지는데!’ 라든지, 장난감의 용도를 설명해 준다 ‘장난감은 가지고 노는 것이지 던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코멘트는 일종의 제한을 설정하는 의미도 된다 이렇게하고 아이의 반응을 본다 이렇게 해서도 아이의 바람직하지 않은 치료상황에서의 행동이 조절되지 않을 때, 점점 심해질 경우에는 아이에게 ‘○○이가 계속 이렇게 하면 놀이를 끝낼 수 밖에 없다’ 라고 말한뒤 놀이를 중단해서 환아 자신도 어느정도의 자제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제제할 때의 상황이 환아에게는 치료자가 엄마와 같은 사람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 아이가 더욱 defiant해졌을 수도 있다. 환아가 악에 받쳐있는 인상이고 오히려 환아가 이런 상황에서 엄마에게 저항할 수 있다는 것이 반갑다 치료자가 제지하는 상황에서 환아에게 ‘선생님이 못하게하니 ○○이가 싫구나!’ 라고 해주면 화나는 것이 증할될 수 있다

7 진단치료 및 계획

환아의 증상이 더 이전 단계인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비교적 최근에 생긴 것이고 발병요인이 뚜렷하다고 생각했으므로 환아의 현상태는 1) 정서적인 문제가 일차적인 것이고, 드러나는 양상은 주의력결핍과잉행동 장애 2) 야경증 3) 아동학대라 생각했다 환아 심리검사 및 엄마 다면적 인성검사 실시하고, 엄마교육시키고, 야경증에 대해서는 엄마의 불안감을 덜어주기위해 약물투여를 먼저 실시하기로 했다...②

② 진단과 역동에 관한 supervision : 진단 문제에 있어서 환아의 나이를 우선 고려해 이 나이에 아이가 산만해 질때 가장 잘 나타나는 진단명을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아이가 1학년인데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이 되는지, 둘째, 정서적인 문제를 일으킬 만한 사건이 있었는지, 셋째, 행위장애에 의한 산만한 문제인지, 넷째, 기질적인 문제에 기반을 둔 발달장애인지? 다섯째, 이 나이에 나타나는 정상행동은 어떤 것인지? 이 아이의 경우 병력상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정서장애와 행동장애다 그 중에서도 1학년 2학기에 들어와 갑자기 생겼으므로 정서장애에 가장 합당할 것 같다

환아는 암전하고 엄마말 잘 듣고 의존적인 아이다 엄마가 아이를 때리는 것은 아이를 더욱 의존적으로 만들었을 수 있다 엄마가 일하게 된 것이 이 집안의 상호관계에 큰 변화를 일으켰고 환아의 문제도 이와 관련하여 생겼다고 볼 수 있다. 일하는 엄마들은 ‘내가 없어도 아이가 잘 지낼 수 있다’고 자신있게 생각해야 한다 자신이 일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껴 아이를 대하는 것도 자신없게 대하고 ‘엄마 일해도 되니?’ 식으로 아이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아이에게 ‘너는 나 없이는

힘들꺼야'의 의미를 전달하게 된다.

엄마가 왜 아이를 이렇게 과격하게 때리게 되는가? 현재 이외에 과거에도 아이를 이렇게 대했을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또한 이 문제가 더 중요할 수 있다. 엄마가 매우 불안정, 불안하고 환아에게 의지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게 했을 수 있다. 최근에 와서 아이가 엄마의 이런 태도에 대해 환아가 반항할 수 있다는 것이 차라리 잘된 것 같다. 아이의 성장하려는 노력인 것 같다.

야경증? 오히려 nightmare일 수도 있다. 아이가 이런 상황에서 악몽을 경험을 할 수 밖에 없다. 아마도 현실자체가 악몽일 수 있다. 얼마나 불안, 공포, 분노속에서 지냈겠는가?

적대적이고 산만한 문제는 6개월 되었다고 하지만 상당히 오랫동안 이랬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이 환아의 진단은 일차적으로는 주의력결핍·과잉운동장애(ADHD, undifferentiated type)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중요한 가족역동의 변화와 관련된 우울감을 수반한 적응장애(adjustment disorder with depressed mood)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런데 아이들을 도와주는 데에는 DSM0-III-R의 진단 체계만으로 도움이 안될 수도 있다. 역동적인(dynamic)면을 더 알아야 한다. 또한 역동

적인 것보다는 전체를 파악해야 한다. 환아 개인의 생물학적인 면과 심리적인 면, 가족, 환경을 구성하는 것들, 예를 들면 학교나 환아가족의 사회경제적인 상태, 이런 여러가지 요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 하는지 파악해야 한다. 이 환아의 경우 개인적인 면에서 친할아버지가 정신병(psychotic)이 있을 가능성과 부모 모두 우울한 면이 많다. 심리적인 면을 너무 심리검사 결과에 의존하지 말고 중요하고 핵심적인 역동(dynamic)은 놀이치료를 하면서 파악하는 것이 더 낫다. 가족의 문제는 가족수가 적을수록 구성원간의 정서적교류가 강렬하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가족간의 대화양상, 각 구성원간의 경계등도 살펴봐야 한다. 환경적인 면에서 환아처럼 형제가 없는 경우 또래 관계가 어떤지, 맞벌이 부부에서 아동의 행동장애가 많다고 하는데 부모의 직업이 전문직일 경우는 이런 문제는 적다.

적대적인 아이는 아이 자신을 철저히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아이의 개체성(individuality), 권리주장등·절음마기 시기는 정상발달상에서도 반항적이고 적대적인 시기다. 만약 이 시기 이후에 까지도 병적으로 오래 지속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IV. 놀이치료 경과

놀이 치료 내용

정식으로 놀이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치료자는 야경증에 대해 약을 쓰기 시작했다. Diazepam 2mg으로 시작하여 5mg, 7mg까지 증량했다. 엄마의 이야기로 환아가 밤에 깨는 횟수는 줄었다고 하였다. 치료자는 엄마에게 환아를 절대로 때리지 말고 아이에게 관심 많이 가져주도록 권유하였다. 환아엄마는 병원 방문뒤로는 아이 거의 때리지 않았고 인형극에 데리고 가고 외식등을 시켜준다고 하였다. 엄마가 생각하기에 환아가 고쳐야 될 점은 1) 손 빠는 것, 입술에 침물히는 것 2) 손으로 집어먹는 식사 습관(미세 근육운동이 잘 안되어서 수저를 안쓰는지?) 3) 밤에 자주 깨는 것이 있다고 했다. 치료자가 1)에 대해서는 엄마에게 관심을 주지 말도록 설명했다. 2)에 대해서는 아이가 정말

Supervision 내용

③ 치료 초반에 인형집을 선택한 것은 아이가 표현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정내에 갈등이 없다면 인형집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 처음에는 아이가 하는 것을 '이게 누구야!' 하는 식으로 파고들듯이 물어보지 말고 관찰하는 것이 좋다. 치료자가 자꾸 현실과 관련시켜서 어느 인형이 누구를 나타내는지 자꾸 물어보면 불안의 정도가 올라가서 놀이를 중단할 수 있다. 치료자가 놀이를 방해하는 결과를 내는 것이다.

목욕하는 것의 의미는? 첫째는 현실생활을 반복한 것일 수 있고, 둘째는 성적인 의미도 있을 수 있고, 세째는 수동적으로 자신이 엄마에게 목욕시킴을 당하던 것을 능동적으로 play out하는 것일 수 있고, 네째는 환아 자신이 care받고 싶은 것에

놀이 치료 내용

그런 문제가 있는지 잘 관찰해보고, 반복적으로 수저로 먹게 하되 이것이 잘 안 된다고 환아를 때리지 말도록 권유하였다 3)에 대해서는 약을 쓰면 많이 좋아질 것이니 걱정하지 말도록 격려했다

놀이정신치료 #1(93 2 17) : 처음부터 인형집 선택하여 아기인형옷 벗기고, 목욕시키고, 쓰다듬어 주고, 초인종 누르고, 자고, 문열고 등의 치료자를 개입시키지 않고 혼자 역할분담 하면서 잘 놀았다 과잉운동에 대해 치료자가 지적하면 어느정도 조절 가능했었다. ③

(엄마는 계속 아이 때리지 않고 잘 데리고 다니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셨다)

놀이정신치료 #2(93 3 3) : 병원사정으로 15분간만 했다 환아는 짧은 시간이지만 후레쉬맨 로봇 선택하여 싸우는 것 연출했다 치료자와는 잘 interaction하고 놀이 끝날무렵에는 안가겠다고 심하게 생떼를 부리나 15분 밖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황에 적절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 ④ 학교 담임 선생님(55세 여자)이 환아가 정신병자 아니냐고 하면서 병 다 나올 때까지 학교에 나오지 말라고 했다

(환아가 학교 못가게 되기 때문에 치료자가 입원하기를 권유함 엄마는 거절하고 주 2회 놀이치료 받는 것에 동의했다)

놀이정신치료 #3(93 3 11) : 들어오자마자 ‘피구해요’ 치료자도 같이 피구하고 약간 져 줬다 ... ⑤ 공 놓치는 것이 있고 금방 다른 놀이로 전환했다 여러가지 장난감 만져 보다가 치료자가 ‘그것 안 할려면 치우고 하자!’는 말에 처음에는 resistant하다가 치료후반에 가서는 비교적 compliant하게 스스로 습관이 되어 치우기도 했다 치료자가 clean-up 유도시에 전에 집었던 장난감에 흥미없고 금방 다른 것으로 옮겨갔다. ⑥ 축구놀이 선택하여

Supervision 내용

대한 소원충족일 수 있다. 아이의 놀이를 자세히 관찰하면 모든 놀이에 의미가 있다 아직까지 치료자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기 전 초기에는 놀이를 자극하거나 제의하지 않는 것이 좋다. 초기 시간이니까 아직 환아가 치료자를 믿지 못한다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생기기 전까지는 개입하지 말라 그냥 지켜보는 것이 신뢰적 관계(trusting relationship)를 형성하는데 중요하다

과잉운동에 대해서 치료자가 불편해져서 개입했는데, 놀이치료시간은 수업시간이 아니고 환아의 내면세계에 관심이 있는고로 웬만하면 지적을 피하는 것이 좋다. 일일이 간섭하면 엄마와 선생이 다를 바 없고 관계형성에 해가 된다.

이 경우와 다르게 만약 환아가 놀이치료실에서 놀지 않으면 ‘집에는 무슨 장난감이 있니?’ 등 물어보면서 ‘이곳에서 놀아도 된다; 는 permission을 준다 놀지 못하면 못하는대로(받아들이고 아이에게 ‘뭐 하고 싶니?, ‘첫 시간이라 불편하구나!’ 등의 표현등을 해도 무난하다 국민학교 아이들에게 무난한 것은 game이다. 축구나 농구 놀이는 나이에 걸맞고, 정서적 내용(emotional)이 없어서 아이들에게 불안을 덜 일으킨다 아이들은 위축(inhibition)이 풀리면 다른 것을 하게 마련이다

④ 둘째시간인데도 벌써 극적놀이를 쉽게 한다는 것은 환아의 상태가 좀더 내면적인 갈등을 가졌을 것을 의미한다 행위장애 아이들은 여러가지 장난감 가지고 놀기에 바쁘다

⑤ 게임은 저주지 말고 차라리 어떤 형태의 handicap을 주는 것이 낫다 그런데 치료초반에 게임 한다는 것은 진다 이긴다의 의미가 아니라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 관계를 형성하는 매개체이다 지고 이기는 것은 관계가 없다 ‘이런것 많이 해 봤니?’, ‘너 어떻게 이렇게 잘하니?’ 등의 comment가 좋다. 국민학교(latency) 아이들은 게임을 선택하는 것이 무난하고 점차 시간이 경과할수록

놀이 치료 내용

자신의 골이 들어가면 약간 기뻐하고 10분정도 하다가 흥미없었다 병원놀이를 환아가 선택하자 치료자가 배 아프다고 환자역할을 하며 청진기로 진찰하고 주사달라고 하자 들 중 큰 주사기로 치료자 팔에 찔렀다 환아 스스로의 말 표현은 없었다

다시 축구 게임시합으로 돌아가자 첫번보다 주의력은 감소했다 다시 다이아몬드 게임을 선택하여 환아가 치료자에게 먼저 어떻게 하는지 스스로 규칙을 가르쳐 주고 5분 정도있다가 다시 하기 싫어했다

다시 인형집 선택하여 '선생님 엄마해, 내가 형 할게!' 하면서 옆에 있던 비행기를 가지고 '비행기 타고 자연농원에 가서 팔팔열차 타는거야!' 하면서 신나하고 창틀에 있는 꼬불꼬불한 블럭을 왔다갔다하면서 놀이기구 타는 시늉하면서 혼자 굉장히 신나했다 ·⑦

놀이시에는 여전히 집중력이 짧고 처음보는 장난감이 많아서인지 여러 장난감으로의 전환이 많았다 전 시간보다 공격성이 줄어들고 후레쉬때

벋지가지고 자신의 옷에 달아보고 '선생님 이것 다아도 되요?' '가견가도 되요?' 하며 이러야

상이 놀이시간 종료무렵에 더욱 심해졌다 '장난감 전화기 가져가도 되요?'

(엄마와의 면담 · 치료자가 엄마에게 집에서 환아에게 장난감 치우는 것 연습시키도록 설명했다

· ⑧ 외갓집에 갔는데 갑자기 자다가 심하게 바들바들 떠는 모습보였다 엄마 생각에는 외할아버지 사진이 걸려 있어서인 것 같다 낮에 피구하고 나서 자꾸 공이 얼굴로 날아온다고 했다 학교안가기 때문에 엄마가 아침에 공부를 가르치는데 30분 정도는 잘하는데 이후로는 집중력이 떨어졌다 싫어서인지 별생각없이 공부하는 것 같다 이해력은 좋은 것 같은데 글씨는 엉망이다 엄마가 가끔 야단치게 되면 아이가 적대적으로 되는 것 같다)

놀이정신치료 #4(93 3 17) : 전날이 놀이치료 시간이었는데 환아, 치료자가 잘못 이해해서 환아가 오늘 다시 오게 되었다

환아는 놀이방에 들어오다말고 '선생님 놀이치료 해 주세요, 언제까지해요?' ···⑨

Supervision 내용

남근기경쟁(phallic competition)이 있을 수 있다 아이가 젖을때 어떻게 다루는지 보는 것도 중요하다 항상 자신이 이겨야 한다는 것은 걸음마기 유아의 issue이다.

⑥ 치우기를 중간 중간에 하지말고 나중에 하도록 하라 그런데 치료자가 왜 이렇게 치우는 것을 강조하는가? 이것은 환아의 문제에 무관하고 치료자의 문제일 수 있다 놀이시간에 좀 지지분하면 어떤가?

⑦ 환아는 벌써 치료자와 많이 친해졌음을 알 수 있다

⑧ 엄마에게 한 지시가 과연 적절한가? 필요한 것인가? 오히려 둘의 싸움을 증가시킬 것이다. 중요한 것은 모자관계의 회복이므로 싸움없이 재미있는 시간을 갖도록 권유해야 할 것이다.

⑨ 환자는 치료자와의 관계가 생겼고 이 시간을 상당히 기다렸을 수 있다

환아는 병아리 피아노 만지다가 그것이 고장난 것을 보고 ‘나는 손가락에 힘이 없어요’ 하면서 다소 어리광 부리듯이 치료자에게 이야기 했다 물고기 낚시 게임하는 것을 보고 ‘두더지’라 표현 하면서 치료자와 번갈아가며 낚시하자고 제안했다가 금방 ‘아니 각자해요’ 하는 모습을 보였다. ·· ⑩ 처음 시작할 때는 암전히, 천천히 낚시를 하다가 돌아가는 물고기가 잘 잡히지 않으니 전부 한꺼번에 끄집어내어 흐뜨려 버렸다

축구 게임 선택하여 약 5분정도 하다가 금방 흥미 잃어버렸다 ·· ⑪

새로운 고장난 장난감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냐고 치료자에게 물어보았다 치료자도 잘 몰라 ‘이것은 투입가? 너는 뭐 같으니?’ 물어보니 환아는 대답 안했다

변신할 수 있는 로봇 선택해서 ‘이놈은 나쁜 놈이야!’, ‘죽었어’ 하면서 후레쉬맨이라고 하는 것과 어린이가 싸우는 것을 연출했다 ·· ⑫

환아는 다시 인형집 선택하여 ‘어디 갔다왔니?’, ‘응 그랬어!’ 하면서 제법 혼자서 역할놀이를 잘 했다 치료자가 끼어들어서 같이 놀아 줄려고 해도 싫어했다

피아노 보면서 ‘이것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치료자가 사용 방법 가르쳐주자 만화영화 노래 2가지를 신나고 길게 즐겁게 불렀다 가사도 틀리지 않고 음정, 박자 전부 정확했다 노래 끝나고 치료자에게 요술공주 밍키해요? 하고 제안했다 치료자가 ‘선생님도 요술공주 밍키 봤는데’ 하면서 ‘선생님도 노래해 볼까?’ 하니 아무 말도 안했다 ·· ⑬

환아는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도 자꾸 시계를 의식하고 금방 놀이가 끝난데도 ‘하기 싫다’고 하였고 치료자가 놀이에 참여하면 환아가 다소 불안해졌다 놀이가 끝날 때에는 항상 마찬가지로 이곳이 있는 장난감을 가져갈려고 했다.

놀이정신치료 #5(93 3 20) : 환아는 들어오자마자 농구하자고 하고 1:0이 되니까 그만 하자고 했다 ‘아빠가 사주셨어요!’ 하면서 자그마한 로봇을 치료자에게 보여주었다 ‘어디서 샀니?’ 물어보니 ‘인천 문방구요, 서울에는 없을걸요!’ 하며 으시대듯이 자랑하였다 · ⑭

환아는 ‘언제까지 해요?’ 하면서 계속 시계 쳐

⑩ 환아가 같이 놀아본 경험이 없어서 같이 한다는 것이 불편해서 다시 같이 안한다고도 했을 수 있다 이 환아는 결핍이 많았던 아동이기 때문에 같이 처음에는 하자고 했을 수 있다 또는 하자고 했다가 안하는 것은 아이의 지속적인 특성일 수 있다

⑪ 처음에는 탐색하는 것일 수 있으므로 그냥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⑫ 각 치료시간마다 아이가 발달단계를 밟는 것을 볼 수 있다 처음에 이것저것 로봇을 만지다가 가족 인형으로 가는 것은 nonsocial, neutral, mechanical 한 게임을 먼저하다가 로봇에서 가족인형으로 간 것 같다 다시 말해서 처음에는 sensory motor level에 있다가 선생님 눈치를 보다가 극적인 놀이(dramatic play)를 한다

⑬ 자꾸 질문하는 것은 좋지 않다 놀이는 현실과 환상 사이의 중간단계고 환아 자신만의 공상(fantasy)인데 자꾸 질문하는 것은 이 공상을 깰 수 있다 자꾸 물어보는 것은 환아에게 불안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웬만하면 그냥 관찰하고 말을 하고 싶으면 환아가 말하는 것은 반복해서 서술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 적극적 개입(active intervention)을 하여야 할 아이들은 우울한 아이들이나 정인지체 아이들이다. 스스로 말 잘하는 아이들은 그냥 관찰하는 것이 좋다 자꾸 개입하면 환아는 치료자가 잔소리하는 것으로 느끼고 치료자가 엄마와 같을 사람일지 모른다고 아이가 느낄 수 있다 어떻게 민느냐? 환아와 엄마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치료자 자신이 환아의 가능성있는 모든 역동적인 면을 생각해 보고 환아의 놀이를 관찰하라

⑭ 아빠가 사준것을 가지고 와서 자랑하고 놀이하는 것은 환아 자신에게 뭔가 위안이 되고 안

놀이 치료 내용

다보는 모습보임 '11시 50분까지 한다'고 치료자가 대답하니 '아! 신난다' 하며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니 좋아하는 모습이 보인다 · ⑮

아주 산만하게 놀다가 치료자에게 피구하자고 제안한뒤 치료자를 향해서 공을 2번 세계 던지고 금방 안한다고 했다 ... ⑯

북 치는 곰돌이 인형보고 건전지가 다 소모 되어서 잘 안되니까 치료자 쳐다보면서 '건전지 다 큰데서 빼서 해요' 제의하고 손 끌어다니면서 '나랑해요!' 다른 장난감의 건전지 보면서 '이것 꺼내도 되요, 안돼요?' 하며 예의 바르게 물어보았다 · ⑰ 파일 바꾸니 꺼내서 치료자가 '이것은 무슨 맛이니?' 물어보니 '더러운 맛이야!' 하고 '○ ○이는 무슨 파일 좋아하니?', '복숭아가 좋아' 말했다

Supervision 내용

심이 되는 것이다 자신의 무기로 가질 수 있다 엄마에게는 이렇게 못할 가능성이 있다

⑮ 이 환아가 얼마나 놀이시간을 즐기고 좋아하는지 알 수 있다. 놀이를 좋아한다기보다 치료자와 같은 시간이 더 소중하다고 할 수 있고 이때 많은 사람들이 '환아가 긍정적 전이(positive transference)'가 생겼다고 한다. 그러나 전이(transference)란 말을 정신과 의사들이 너무 남용하는 것 같다. 환아, 치료자와의 관계는 실질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치료초기의 반응은 현실에 대한 반응이 많다. 즉 치료자가 잘들어 주고 같이 놀아주니 그 사람은 좋은 것이지 이것이 과거의 누구와 같으니까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관계가 형성된 다음에 중반기에 들어서서 치료상황에 너무나 틀린 반응을 보이면 그때 transference를 생각할 수 있다. 환아가 치료자를 엄마보다 더 모성적으로 잘 대 해주기 때문에 진정으로 좋아할 수 있다

⑯ 이것은 중요한 사건이다 환아가 치료자에게 처음으로 같이 피구하자고 했을 때 치료자의 반응이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기분이 좋을 수도, 어색할 수 있다 일단 시작을 했는데 환아는 어른과 이렇게 놀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가 불편해 그만 두었을 수 있다 자신이 너무 공격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치료자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았나 걱정하여 그만 두었을 수 있다 또는 환아가 선생님을 위해 안했을 수도 있다 치료자가 안경쓰고 있고, 여자이고 다소 좁은 공간에서 피구를 한다는 것을 꺼려하는 것 같아 환아가 이 마음을 알고 그만 두었을 수 있다 또는 자신이 너무 공격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치료자의 마음을 상하지 않았나 걱정하여 그만 두었을지 모르겠다 어쩌든 환아는 불안이 고조되어 놀이 중단이 일어났다 이때 치료자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치료자: 환아가 처음 시작하다가 그냥 그만 두는 것은 일종의 pattern이라 생각하여 별 의미를 두지 않았다

⑰ 환아는 열심히 선생님이랑 같이 놀자고 초대하는 것이다 매우 긍정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니까 환아는 예의바르게 물어보는 것이다 고장난 장난감이나 건전지가 다 되었을 경우

놀이 치료 내용

다시 자신이 가져온 sky saver를 가지고 다른 로보트를 가르키며 ‘이놈(왕)을 박살내 버릴거야!’, ‘이놈은 골다운에서 왕이야’ 갑자기 ‘나는 골다운 왕이다’ 하고 ‘애는 형아예요’ 하며 ‘지구를 파괴하는 삼총사’ 라는 만화 영화노래를 신나게 불렀다 ‘이 새끼는 나쁜 놈이야!’ 후레쉬 킹을 이 새끼가 죽였어 잘했다 미친놈아 이 새끼도 날 수 있어 사람이 아니고 비디오예요! .. ⑬

‘맛좀 봐라 내 차례 돌아온다 악당들을 물리치는 몽키삼총사’, ‘이 새끼도 나쁜 놈이니까 죽어요 미사일인지도 모르고’, ‘방패는 무적, 이것만 있으면 해 치워요’, ‘이 녀석은 골로 가’, ‘아! 모르고 착한 놈이 죽었다’, ‘와! 다시 착한 놈이 이겼다’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온 sky saver를 들어올림 ‘sky saver랑 이 새끼랑 싸웠다’, ‘아빠가 매일 300원씩 주고 가요!’, ‘우리 아빠가 최고예요!’ 스스로 생각나는 생각나는 동요 부르고 있었다 ... ⑭

(엄마와의 면담 : 아이가 피곤해서 일찍 자지만 아침에 일찍 놀고 싶어 일찍 일어난다 아직 학교 안다니고 있지만 어느정도 아이의 상태가 좋아지면 전학시킬 예정이다 동서가 학교 교사여서 주소 옮기고, 교사끼리 잘 통하니 좋은 선생님이 배정받게 할 예정이다 요사이 행동은 엄마가 손을 안 대도 좋을 만큼 좋아졌지만 고집은 여전히 세다 병원 오는 도중 전철타고 오는데 노인들에게 ‘할망구, 할아방구’ 하며 놀리고 그러지 말라고 하니 바닥에 주저앉아 뺨부러 엄마가 참다못해 아이 손을 물어버렸다 현재 남아있는 문제점도 1) 모르는 사람에게 아저씨!, 형! 하고 말시키고 2) 어른 안 무서워하고 말 막한다 치료자가 아이가 놀이시간에 지나치게 욕을 많이 해서 엄마에게 이유를 물어보았다 ... ⑮ 동네에 상스러운 말 쓰는 사람있어 아이들이 쓰는 말을 배운다 예를 들면 ‘뺨까네, 할아방구’ 3) 충동적인 행동이 있어서 미술학원차 타고가다가 갑자기 차문을 열어서 떨어졌는데 다행히 빨리 달리지 않아서 다치지 않았다 이런 점은 엄마와 비슷하다 좋아진 면은 또래 아이들이나 어린 아이들과 잘 어울리고 피구도 재미있게 잘하고 노래를 한다 1학년 선생님이

Supervision 내용

치료자는 ‘이 건전지 안 맞으면 뭘 가지고 놀까? 물어볼 수도 있고 ‘이것 안 되는데 뭘 가지고 놀까? 물어보면서 치료자가 다른 놀이를 제안할 수 있다

⑯ 환아가 욕하는 것은 치료상황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받아 들여도 된다 욕하면서 공격성이 마구 나오니까 즉 억압된 분노나 적개심이 마구 나오니까 환아는 불안해져서 ‘이것은 현실이 아니고 비디오’ 라고 했고 자신의 공격성에 스스로 두려워서 이것이 진짜가 아님을 또한 자신에게도 확인시키는 것일 수 있다 그래서 놀이중단이 있을 때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꿈꿀 때도 마찬가지로 꿈속의 내용이 너무 불안을 불러일으키면 잠을 깨는 것과 마찬가지로

⑰ 아이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갈라놓고 싸운다 선과 악의 대결은 끊이지 않는 인간내면과 인간관계의 과제다 환아 마음에 억압된 분노가 양가 적임을 알 수 있고 이러한 놀이가 아빠와 엄마의 대결이나 나와 엄마의 대결 즉, 엄마에 대한 aggression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시점에서 이 놀이가 정확히 무엇을 상징하느냐를 알아내는 것이 아니고 매우 공격적인 이런 표현을 허용하고 수용한다는데 있다

⑱ 놀이시간 끝나고 엄마 면담시 ‘아이가 왜 이렇게 욕을 많이 해요? 물어보는 것은 치료자와 환아 사이의 비밀보장이 깨지는 것이므로 아이생각에 자신이 치료실에서 하는 것이 엄마에게 다 보고 되는구나 생각하게 되므로 치료자는 속으로 ‘아이가 되게 화났구나!’ 생각만 하는 것이 낫다 엄마에게는 ‘아이가 화날때 어떻게 하죠, 욕도하고 그러니까?’ 물어보든지 ‘부모는 화날때 어떻습니

놀이 치료 내용

아이를 많이 예뻐해서 나중에 합창단시켜 보라고 했었다 미술학원 선생님도 아이에게 잘해주고 아이치료에 많이 협조한다 엄마도 마음이 많이 편해졌다 아이의 진도가 희망적이고 주변 사람들도 기도를 많이 해준다 ... ㉑

놀이정신치료 #6(93.3.24)-비디오 녹화하여 관찰했다: 환아의 지속적인 놀이양상은 치료자와 같이하다 그만두고 다시 다른 것으로 옮기곤 한다 아직도 반대적이고, 치우기를 더욱 안하려고 하고 병원대기실의 다른 환아에게 너 정신병자냐 물어보고 나는 정신병자 아니다라고 했다 치료자에게 더욱 공격적으로 공 던졌다

축구공 가지고 바닥에 선 그어져 있는 것 가르키며 '이 색은 나고 파란색은 선생님 이 줄이 왜 있는줄 알아요?', '여기는 우리팀, 저기는 다른 팀이에요' 이렇게 설명하다 갑자기 '안해!' · ㉒ 치료자가 '왜 하기 싫어?' 물어봐도 대답 안하고 ... ㉓ 건전지로 돌아가는 낚시에 물고기 잡는 것 조그만 낚시대로 하다가 coordination 잘 안되니까 돌아가는 물고기 밖으로 마구잡이로 끌어낸다 바이어맨 로봇 가지고 장난감 피아노 위를 내리치고 다시 피아노치기 시작했다 환아는 '선생님! 피아노 소리나죠? 이것 칠 수 있어요?' 하면서 찬송가 멜로디쳐서 치료자가 맞춰 따라 부르니 멜로디를 끝까지 모르는지 벽에 걸려있는 시계만 쳐다보고 있어 치료자가 '다시 한번 쳐봐!' 하고 격려하니 다른 놀이로 옮겼다 아기놀이동산이란 장난감 만지며 돌아가는 그림 손으로 돌리고 토끼와 거북이 경주하는 인형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치료자가 환아 가까이 너무 가까이 다가가는 경향이 있었다)

치료자: '강총강총 뛰면서...' 치료자가 토끼 노래 하니

환아: '나는 거북이 노래도 알아요!' 하면서 멜로디 거북이 가지고 와서 '이것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엄마 거북이가 아기 거북이를...' 하면서 '... 우리는 알았데 말고 말은 이세상' 노래한다 거북이 놀다가 갑자기 바이오맨으로 옮기고 로봇가 거북이를 부수고 다른 로봇트 등장시켰다

Supervision 내용

까?' 물어보는 것이 더 좋다

㉑ 환아와 엄마가 좋아진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는 엄마도 치료자에게 그녀 자신의 좌절감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었고 ventilation의 기회도 가졌기 때문이다 둘째는 병원에 다니면서 어머니가 긍정적으로 노력하고 참을려고 하여 둘 사이의 관계가 좋아졌기 때문일 수 있다. 세째 가능성은 아직도 치료자와 환자가 신혼기 일 수 있다 즉 아직은 환아와 치료자가 초기의 긍정적인 그리고 마술적인 기대를 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 진정으로 좋아질지는 좀더 두고 보아야하며 환아의 근본적인 갈등이 해소되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㉒ 왜 아이가 놀이를 그만 두었는지 생각해 봐야한다 첫째는 환아 자신이 멋대로 하고 싶은 것이 있을 수 있고, 둘째는 환아가 선생님이 하기 싫어한다고 느낄 수 있다 세째는 선생님이 잘 모르는 것같아 환아 자신이 선생님을 가르쳐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을 수 있다

㉓ 결국 환아는 선생님과 축구대결을 하자고 도전장을 내지만 자기가 너무 어머니에게 정면대결을 하게되니 갑자기 불안해 진 것은 아닐까? 이때 치료자가 직접적으로 질책하듯 또는 정말 이유를 캐듯 '왜 하기 싫어?' 보다는 '갑자기 하기 싫어졌구나' 라고 환아의 행동을 기술하는 것이 무난하다 놀이치료 초기라도 치료자가 너무 active하지 않는 것이 좋다 처음에는 환아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왜 이렇게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치료자가 너무 active하면 환아가 withdrawal할 가능성이 있다

㉔ 치료자와 환아의 거리가 너무 가깝다. 약간의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환아가 아마 치료자에게 거리를 두느라고 물음에 아무런 대답없이 피아노를 쳤는지 모르겠다 치료자가 너무 환아에게 가까이 가니까 피아노치다가 그만두는 것 같다 아이가 melody를 치고 있을 때 '교회를 다니나 보지?' 아니면 '피아노 교습을 배우냐?' 등 최

놀이 치료 내용

환아: ‘또 부수는 거야!’ 하면서 ‘나 이렇게 할 수 있어!’ 하며 치료자 보라는 듯이 display함 승용차 가지고 굴리고 치료자가 어디가 앞인줄 구별이 안되어

치료자: ‘어디가 앞이니?’ 하니 대답안하고...²⁴

환아: ‘와! 사고 났다. 후레쉬맨이 버스를 박살 내요’ 계속 깨진 창문사이로 후레쉬맨을 쭈셔 넣었다

환아: ‘가자, 애들아’

치료자: ‘누가 착한 사람이야, 몇 명 났니?’

환아: 8명

치료자: ‘어디 가는 거야? 학원? 미술학원?’

환아: 미술학원이에요, 책 읽어요 다른 아이들은 뒤에 숨어서 콜라먹어요

치료자: 무슨 콜라 먹는데? 코카, 펩시?

환아: ‘후레쉬맨이 다쳤어요’ 후레쉬맨이 차에 깔리는 것 연출했다

치료자: ‘와! 병원에 가야겠네’

환아: 후레쉬맨이 고기 잡는것 연출하고 싸우는 것 하는데 그전에 싸우던 theme과는 별 연결은 없다

치료자: 치료자도 같이 싸우는 것을 연출했다 ‘통야!’²⁵

환아: ‘맨날 통야 야!’, ‘아저씨는 물고기 잡아서 밀하면...’, ‘이것(후레쉬맨)이 원래는 사람이었는데 바꿨어요!’

치료자: 치료자가 다가가는 것을 싫어한다 ...²⁶

환아: ‘Machine Man’ 가르치면서 지난번에도 고장났는데 ‘이것 고쳤어요?’ 물어본다 동물 puzzle 보면서 ‘이것 해 보세요’ 하면서 치료자에게 내밀었다 하다가 금방 다른 것으로 바꾸고 과일 puzzle을 가지고 왔다

치료자: ‘이것 선생님이 알아맞춰 볼까? ○○ 이 딸기 먹어봤니?’

환아: 환아는 아무 대답없이 기차가 미끄럼 타는것 연출한다 다시 인형집으로 가서 혼자서 놀이한다 아버지라고 하는 인형 가지고 ‘다녀왔어요, 옷 갈아입을게요’ 하면서 인형집의 이층계단을 올라갈려고 노력한다 아이 인형가지고 ‘아빠는 왜 못올라가요?’, ‘아버지 저 놀러가고 싶어요’ 아빠인형이 ‘이 밤중에 어디를 놀러가냐?’,

Supervision 내용

소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좋다

환아가 우울할 경우는 정서적으로 모자라니까 치료자가 다소 active한 것이 좋다 불안한 아이는 기다려 주는 것이 좋다.

²⁴ 초심 놀이치료자가 어려워 하는 점은 얼마만큼 놀이에 가담할까? 얼마만큼 적극적이어야 하느냐인데 단순한 놀이와 놀이치료를 구분해야 한다. Play therapy는 치료적 목적이 있어야 한다 치료자는 이것이 잘 일어 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놀이가 안 일어날 때 도와주고 잘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가만히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료자가 정말 놀아줘야 할 때는 ‘치료적 놀이(theraplay)’란 개념이 더 어울린다 이것은 정신지체나 자폐증 등에 더 잘어울린다

²⁵ 치료자가 환아 가까이에서 길목을 막고 있다 치료자는 떨어져 있다가 환아가 가끔 초창하면 들어가서 comment하면 된다

²⁶ 치료자가 너무 가까이 있는 것이 환아를 매우 불편하게 할 수 있다 엄마와의 관계는 부정적이고 무서워하는 관계인데 치료자가 너무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지? 신체적 접촉은 그러니까 환아도 치료자가 너무 가까이 다가오고 적극적인 것을 불편해하고 ‘싫어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치료자가 이렇게까지 가까이 관여하지 않았다면 환아가 더 공격적이었을 수 있다 치료자가 환아에게 너무 잘 해줄려고 한다 이것이 과연 치료적(therapeutic)인가?

놀이 치료 내용

‘그래도요…’ 하면서 머뭇거리며 아빠를 조르는 모습 연출한다 ‘그러면 한 시간만 놀다오너라’, ‘동수야, 놀자’

치료자: ‘밤중에 왜 왔니?’ ㉗

환아: ‘너 밤중에 왜 왔어!’ 하며 치료자 말 따라하고 ‘우리집에 왔으니까 맛있는 것 먹자’, ‘생일축하 노래 틀어주세요, 오르간으로 하지말고 중간음으로요, 멜로디도 같아요’ 하며 치료자에게 주문했다

치료자: ‘케익 잘라 먹어야지’

환아: ‘나 집에 가야지, 몇분 남았어?’ … ㉘

치료자: 12시 50분까진데

환아: 계속 피리불고 있다 치료자도 피리부는 것 따라하나 싫어한다 ㉙ 같이 노래한다 ‘동무들아 오너라 서로들 손잡고’, ‘나 집에 가고 싶은데’ 하다가 또 같이 노래한다 ‘따따따 따따따 주먹손으로…’ 하다가 피구공 가지고 피구 하자고 환아가 반칙하면서 1:0으로 치료자를 이기고 치료자에게는 ‘double out’ 이라고 하면서 반칙했다고 한다 ‘치우고 가야지’ 하면서 놀던것 다 치우고 갔다

놀이정신치료 #7(93 3 26)

환아: (들어오자 마자) 몇 시까지 해요?

치료자: 지난번처럼 1시 55분까지 하지

환아: 2시 10분까지 해요 … ㉚

환아: (치료자에게 축구게임 제안하고 열심히하다가) ‘5분 남았어요, 경기끝 2:2예요 … ㉛ 심판이 경기 끝냈어요’

Supervision 내용

㉗ 지금 치료자 자신이 매우 불안하게 열심히 놀이에 끼어들려고 하고 있다 진행이 잘되고 있으면 치료자는 가만히 있는 것이 낫다 환아 자신이 원하면 초대(invite)할 것이다 누구 생일인지? 친구? 자신일 수도 있다 치료자가 너무 파고들면 놀이의 중단이 생긴다 놀이는 어느 정도의 긴장을 유지해야 한다 Paly가 단조롭고 반복적이면 방어적일 수 있다 이럴 때는 핵심주제(central theme)로 약간 접근시키면 놀이치료가 더욱 긴장되고 재미있어질 수 있다 환아가 언제 놀이 중단이 일어나고 환아의 불안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㉘ 환아가 집에 가고싶다고 하면 치료자는 환아에게 ‘그만하고 싶은가보지? 하지만 시간이 안됐으니 기다려라’ 하는게 낫다 지금 환아는 치료자의 적극적인 개입 때문에 불안해지고 빨리 치료가 끝나기를 바랄 것이다

㉙ 이 상황을 잘 살펴보면 왜 이 환아가 반대로 행동하는지 알 수 있다 아이들은 자율성을 존중받기 바라는데 자율성이 존중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자율성의 존중(respect for autonomy)’이 잘 안되기 때문에 적대적인 면이 생긴다 즉 지금 치료자는 환아가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을 진정으로 내버려 두지 못하고 자꾸 같이 할려고 하는데 아마도 간섭이 많고 통제적인 엄마와 같이 느낄지도 모른다 환아가 노래부르면 치료자는 따라하지 말고 끝까지 부를 때까지 기다려라 선생님이 너무 active하기 때문에 환아가 방해를 받는다

㉚ 환아가 시간연장을 원하는 것은 치료자의 역할이 환아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환아는 치료자를 말할 수 없는 경외감으로 쳐다보고 이런 것이 극단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경계성인격장애라고 말할 수 있다 환아는 속으로 ‘선생님, 저는요 일주일 내내 이 시간을 위해 살아요 다른 것은 짜증 뿐 이에요’ 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런 면을 볼때 환자에게 치료자가 얼마나 중요한 지 알 수 있다 치료자는 가끔 이런 점에 빠져 스스로가 전지전능하다고 느낄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

㉛ 축구게임을 하다가 환아가 왜 갑자기 그만

놀이 치료 내용

환아 . (놀이의 전환이 매우 빨리 일어남) 병아리 피아노 가지고 노래(찬송가 : ‘은 세상이 독수리에 날개밑에 모인다 진리자유 햇불들고...’ 하다가 갑자기 ‘똥마려워 못참아’ 소리쳤다... ㉔ 치료자 ‘그럼 화장실 갔다가 할까?’

환아 : 싫어요

동물농장 피아노 치면서 ‘병아리 소리에 다른 동물들이 깨요’(다른 노래가 나오는 피아노 치기 시작함)

환아 : 후레쉬맨 로봇트 선택하여 후레쉬맨이 좋은 놈인데, 사자(나쁜놈)를 선택하여 죽이는 모습 연출한다 그러다가 갑자기 ‘축구왕 숫돌이’ 노래한다 ‘선생님, 어제 축구 6 : 2로 내가 이겼어요’ ... ㉕

Supervision 내용

두었을까?

전임의 N : 자신이 질것 같아서 끝낼 수도 있고

전임의 K : 자신이 계속할 수도 없고 예를들면 치료자하고는 이기고 지고 할 수 없다

Supervisor : 환아가 이제는 치료자와 죽어라고 싸워서 이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치료자와 관계가 좋아져서 엄마보다 좋다고 느낄 수 있다. 옛날보다 치료자에게 마음이 누그러질 수 있다. 그래서 치료자가 들어오자마자 좀더 놀자고 했을 수 있다 환아가 심판이란 매개체를 통해 표현할 수 있다 자신이 질것 같으니까 끝낼 수 있다 지지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이 상황에서 어떤 표현을 써야 하는지? 예를 들면 ‘누구나 지면 화가 나지’ 또는 ‘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야’ 식으로 아이의 기분을 치료자가 인지하고 느낌자체는 환아가 해석하도록 한다 ‘괜찮아, 다음에는 잘 할 수 있을거야’고 코멘트하는 것은 다음에는 이겨야 된다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일 수 있다. 또한 또한 그냥 피상적으로 상처를 덮어두는 것일 수 있다

전임의 S : 규칙을 줘서 환아에게 전반전, 후반전을 제시하는 것은 어떨지?

Supervisor : 그렇게 하면 강제성이 있을 수 있고, 환아가 놀이를 lead 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전임의 S : 아이의 놀이를 보니까 옛날의 놀이를 항상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발달단계를 반복하는 것인 것 같다.

㉖ 피아노를 치다가 갑자기 똥이 마렵다는데 어떻게 갑자기 똥이 마려울 수 있는지? 그 동기를 생각하고 이럴때 치료자가 먼저 아이에게 해결책을 제시하지 말아야 한다

㉗ 후레쉬맨은 아이의 공격성이 드러나는 주된 주제이다 이렇게 하다가 축구왕 숫돌이는 아이의 공격적인 면을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를들면 미식 축구는 굉장히 공격적인 운동이고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치지만 규칙에 의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별 문제없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래서 후레쉬맨이란 너무 공격적인 것이 튀어나오니까 축구하는 숫돌이로 바뀔 수 있다

놀이 치료 내용

치료자 : 그래, 정말 재미있었겠네 잘했구나! ‘너는 무슨 포지션이었니?’ … ㉔ ‘몇 명이 했니?’

환아 : ‘겨우 그냥 두 명이예요’, ‘아니예요, 그냥 뽕 이예요’, ‘사실은 내가 졌어요’ … ㉕

치료자 : (치료자가 어떻게 반응해야할 지를 몰랐다 아이가 위축될까봐) … ㉖

(엄마와의 면담 : 아이가 집에서 공부를 옛날처럼 차분하게 잘한다 응용력도 잘되고, 학교가는 것은 남을 방해하는 것만 안하면 될 것 같다 아이가 심리적으로 압박받는 날, 엄마가 심하게 야단치는 날은 기가 죽어있는 것 같다 성당 주일학교에 데리고 나갈려고 한다 수녀님이 아무리 해도 말을 안듣고 종교는 강압하는 것이 아닌데, 학교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지하철에서 아이가 막무가내이다 옆에 있는 아저씨 치면서 ‘아저씨 몇 살이예요? 어디까지 가요?’, ‘안경 쓴 아저씨 왜 저를 쳐다봐요?’ 그럴때면 사람들이 잘 받아주기도 하고 화내는 사람도 있다 환아 할머니는 경희의료원에 가서 한약먹자고 하신다고 야경중은 많이 좋아졌다 환아 아버지는 입원하라고 해서 아이가 많이 나빠진 것이 아니냐고 걱정하신다고 함 한약먹고 놀이치료도 하고 해서 병원은 절대적으로 신뢰한다)

놀이정신치료 #8(93 3 30)

환아 : (들어오자마자 또) ‘몇 시까지 해요? 항상 5~10분 정도 하자고 했다 ‘동물소리 나는 것 어디 있어요?’ … ㉗

치료자 : 글썽 여기는 없네! (이 치료방을 다른 방으로 옮겨서 없었음)

환아 : ‘어이가 없어’(놀이기구 없는 것을 보고 그렇게 표현을 함)

환아 : (제주님은 곰돌이를 보고) ‘재수없어’,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지구의 꺼내줘’, ‘일본나라 그럴 수 있어요’, ‘피구해요’(라고 제안을 해서 피구를 시작함)

치료자 : 첫 번째는 7 : 7로 되었다가, 나중 두 번째에서는 치료자가 4 : 3으로 이김 이것저것 엇질러 놓아서 ‘이것 치우고 하자’ 라고 권유하니 …

㉘

환아 : ‘장난감 치우러 놀이치료실에 오는 거예요?’

Supervision 내용

㉔ “무슨 포지션이었니?” 하면 환자가 알 수 있을까? 환자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써야 한다

㉕ 아이가 졌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큰 발전이다 자신의 왜소함과 패배감을 치료자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만큼 치료자를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㉖ 이 때 치료자는 환자의 이러한 변화를 강화할 수 있다 ‘뽕이라고 솔직히 이야기 하니까 참 좋구나! 하면 ‘솔직히 이야기 하니까, 오히려 선생님이 나를 칭찬해 주는구나!’고 환아가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에 엄마가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너 그것 뽕이지? 또는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그런것 하느냐!’고 반응했을 것인데, 아이가 비록 게임에서 졌더라도 치료자와의 이러한 상호교환을 통해 올바른 감정적 경험(corrective emotional experience)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즉 치료자로 인해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㉗ 놀이치료하는 환아들이 매시간 시작할 때 같은 놀이로 시작하여 모두 만져보고 다른 놀이로 옮겨가는 경향이 있다 아마도 동일성의 유지(Need for sameness) 때문일 것이다

㉘ 감정의 상태를 다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놀이치료에서 인지적인 것은 2차적이다 환아는 져서 싫고, 이것저것 어질렀는데 치료자는 또다시 자신이 원하는 것 때문에 치우기를 요구하였다. 그 보다는 ‘또 져서 서운하겠네!’ 등의 언급을 하여 환자가 지는 것을 배우도록 돕는 것이 좋다 질줄 모르면 피롭다

놀이 치료 내용

미치겠네 정말... ㉞ 선생님에 내말 알아 듣지 못하잖아요 몰라요 교회가서 까불었어. 느낌보 거북아 우리 경주할래? 이겼다.'... ㉟

(엄마와의 면담 : 성당에서 많이 돌아다녀요 의자에 누워있어서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데리고 나온다 밤에는 거의 안잔다 학교를 옮기기로 했다 퇴거만 하면 금방 처리된다. 오락실 가는 것이 문제다-집에 있는 오락기를 그냥 꺼내 주도록 했다 동네 아이들에게 전부 '나 정신과에 다닌다'고 한다 아이들이 전부 정신병자라고 놀리고 간질병자라고 하기도 한다 환아는 아이들에게 '나는 소화가 안돼서 소아정신과에 간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 ... ㊱ 아이가 지능적으로 사람을 괴롭힌다)

놀이정신치료 #9(93.4.6)

환아 : '1번 방이 더 좋은데, 크니까'(자신이 달고 온 이름표도 보여 주고, 치료자에게 자랑했다 공도 가져오고 체육복 입고 오고) '오늘은 30분까지만 하고 싶어요 피구를 세게 했다', '개굴개굴-악어때 엄마가 악어 새끼를 때린대요' ... ㊲ 달팽이 모양의 퍼즐하다가 '나 밖에 나가서 콜라 먹어야지'

치료자 '안돼, 끝나고 먹어라' - 끝내 막무가내로 밖에 나가서 먹던 콜라를 가져옴 ... ㊳

Supervision 내용

㉞ '미치겠다' 이럴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적대적인 행동의 역동적인 면이다 뭘 시키면 다른 방향으로 한다 이때 치료자는 '선생님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했구나!', '선생님이 치우라고해서 화가 났구나', '선생님은 치우기를 너무 강조하는 성격인가봐'(내가 내 버릇 때문에 그랬구나!)와 같은 식으로 때로는 솔직해 질 필요가 있다 좋은 부모면 자식앞에서 잘못을 인정할 수도 있어야 한다 이런 것을 보고 아이들이 성장한다

㉟ 이럴때 치료자는 '너한테는 이기는 것이 중요하구나'고 코멘트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㊱ 아이가 정신과에 다니는 것은 아직 우리나라의 관습 때문에 자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좋지 않다

㊲ '악어 엄마가 아이들을 때렸구나!' 라고 서술식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 좋다 물어보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그래, 엄마 악어가 아이 악어를 때렸구나!', '왜 때렸을까?', '아이가 뭘 잘못했을 때 때리지?', '엄마에게 맞아서 아이는 기분이 어땠을까?' 이제 치료도 초기가 아니기 때문에 좀더 깊게 물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㊳ 콜라를 가지러 나갈 : 환아의 이런 행동은 직전에 엄마 악어가 새끼 악어를 때리는 극적놀이가 불안올 증가시켰기 때문에 놀이가 중단(play disruption)되었다고 볼 수 있고, 아니면 환자가 이제는 치료자를 시험해보고 겨누어 보려는 행동일 수도 있다(Power struggle) 일단 치료자에 대한 신뢰가 생겼으니까 치료자에게 도전할 수 있고, 나를 어느정도 인정해 줄 것인지를 시험해보는 시기가 온 듯하다

전임의 N : 성인의 정신치료 때에는 치료자가 일단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앉아 있으면 되지만, 아이들의 놀이치료에서는 치료자도, 환자도 육체적으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놀이치료를 제대로 하다보면 힘이 많이 든다 그래서 단순하게 목이 말라서 무엇인가 마시러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Supervisor : 치료자가 왜 저지하였는가? 카페트가 더러워질까봐 콜라를 가지고 들어오지 말라고

환아 : ‘축구하고 싶다, 피구하고 싶다’고 하면서
공 던지다가 특별한 이유없이 금방 시들해졌다…

④

치료자 . 치료자가 먼저 손가락 인형 가지고 유도
했다 하나는 교장선생님이고, 하나는 미숙이란
아이인데, 환아는 미숙이란 아이를 가지고

환아 : ‘미숙아, 너는 참 착하거나 선생님이 과자
줄게’-주로 치료자가 많이 이끌어 나갔다 교
장선생님이 미숙이집에 초대되어 식사하는 모습
등을 보여주고, 갑자기 달팽이가 알을 낳고 알이
아이들이 됐다고, 여기서 미숙이가 나옴 다시
피구하자고 또 축구하자고 했다 처음에는 세계
던지다가 치료자의 눈치보고 살살 던지는 모습
보였다 40분쯤 지나자 지겨워하는 모습 보임
시계가 30분쯤 되니 이 시계 고장났다고 판정
부리며, 나는 시계가 없지만 시계 볼 수 있어요’
마지막쯤 되니 산만해졌다… ⑤

(엄마와의 면담 : 학교 전학했다 문제가 많았다
가위로 선생님 옷 자르고, 교통사고 난 아이 때리고
학습지집아 반에 들어가서 학교에 엄마랑 당분간
매일 같이 다니기로 했다 특수학교나 교양시설이
있는 학교로 옮겨야 되지 않을까? 집에서는 산
만하지 않다 상식이하의 행동을 하는 것이 문제다.
시험지주면 답안지에 ‘모른다’고 크게 써놓았다
교장선생님께도 욕하고 안하무인이다 미술학원에
서는 잘 하기도, 잘 못하기도 한다.)

했다면 아이가 금방 눈치챈다 치료자 자신의 욕
구가 치료의 진행을 자꾸 방해하는 것 같다.

④ 환아도 치료자가 못마땅해 하고 화가 난 것을
(?) 눈치채고 미안해 하는 것 같다

⑤ 미숙이란 이름이 치료자와 비슷하고 미숙이를
칭찬해주고 아기배고 등은 새로운 주제가 나오는
것 같다. 이 환아의 이제까지의 놀이를 살펴보면
놀이치료 과정에서 발달단계를 거치는 것을 볼 수
있다. 처음에는 자신을 인정해주고 관심을 가지니까
치료적 관계, 신뢰가 형성되었고, 선생님이 자신의
공격성도 다 받아주고 자신을 존중해 주니까 자
율성이 인정된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달팽이가
미숙이를 낳는등의, 성적인, 에디피스적 주제가 등
장한다. 이제 이 환아는 놀이치료의 초기를 지나
중반기에 들어감을 알 수 있다 이런 것은 oedipal
theme과 될 수도 있다 처음으로 oedipal theme이
제시되고 보니까 아이 자신이 불안해진 것 같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항상 10분씩 더 하자고 하던
아이가 그만하자고 하는 것이 아닐까.

V. 토 론

이상 놀이의 과정과 내용, 치료자와 환자와의
상호작용, 이에 대한 지도감독 comment등을 읽어
보면 많은 것이 자명하리라고 본다 본 증례 놀이
치료를 살펴보면 놀이치료를 처음 시작한 전임의
선생의 매우 솔직한 기술을 통해 비교적 분명했던
잘못을 곧 알 수 있다

우선 치료자는 처음부터 환자가 놀이할 때 그대로
놀이를 받아주지 못하고 자신의 욕구 즉, 정리정
돈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는 것이 강요되어서 환자가

이것 저것 만지고 어지럽게 하는 것을 참기가 힘
들어서 그것부터 제제를 가했음을 볼 수가 있다
치료자의 청결과 정돈을 강조하는 성격적인 면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아마도 자신의
자녀들과의 놀이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반영해
주기도 할 것이다 놀이치료에 있어서의 놀이는
교육적인 놀이나 집에서 일정시간동안 깨끗이 정
리하고 하는 등의 놀이와 구별되어야 하며 하고
싶은 놀이를 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고 어느정
도의 어지러움은 그 자체가 환자의 태도나 내면의
상태를 얘기해 줌으로 치료자가 간섭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또 한가지 치료자가 흔히 반복해서 하는 행동중의 하나는 환아가 놀이하는 것을 허용하고 그대로 지켜보지를 못하고 적극적으로 놀이에 가담하려고 함으로써 환아가 오히려 치료자의 개입을 불편해하고 이로 인하여 놀이의 중단이 일어남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 또한 초심치료자의 흔한 오류라고 할 수가 있다 놀이치료에서 놀이를 어느정도, 어떻게 할줄 몰라 무조건 관찰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놀이에 전혀 가담하지 않고 관찰만 함으로써 환아로 하여금 혼자서 놀이하는 것이 부자연스럽고 불편하게 느껴지게 하는 초심자도 있을 뿐만 아니라 본 경우처럼 놀이는 무엇인가 같이 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놀이에 가담하고 놀이의 주도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이것은 치료자가 환자가 가져오는 주제를 따라가야 한다는 정신치료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며(Axline, 1955), 또 특히 놀이치료의 초기에는 환자의 내면적인 갈등과 환상 등에 대하여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치료자 자신이 적극적으로 놀이를 주도하려 한다면 환아에게는 별로 필요없거나 도움이 안되는 놀이로 흐를 수가 있기 때문이다

내면적, 정서적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특히 치료자가 치료 초반에 많은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치료자가 적게 개입할수록 환아가 많은 것을 드러낸다 질문을 할 때도 환아의 흐름과 보조를 맞추고 단정적인 질문보다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 좋다

세번째으로 흔한 놀이치료에 있어서의 오류는 놀이를 관찰하다보면 역동적으로 매우 분명한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이러한 놀이의 내용이 치료자료 하여금 해석하고 싶도록 유혹하는 면이 많다. 그러나 놀이치료에 있어서 해석이란 성인에 있어서의 해석보다도 더 신중을 기하며 많은 경우에 해석이 필요없고 놀이자체의 과정을 통하여 치료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홍강의와 Greenberg, 1980) 지적인 해석은 아동들이 이해하기 힘들뿐 아니라 불필요할 경우가 많다 특히 놀이치료의 초기에는 치료자는 그들의 갈등과 사고, 감정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주 목적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치료적인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초기 놀이정신치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자가

환아와 의미있고 견고한 관계를 수립하는 것으로써 이는 이제까지 긍정적 전이(Freud, 1965), 기본적인 신뢰(Erikson, 1963) 그리고 애착(Bowlby, 1969)이라고 기술되었으며 이러한 관계가 초기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치료가 더이상 진행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치료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치료자는 놀이의 초기 치료시간에는 환자를 받아들이고 어떤 놀이도 허용하면서 관찰을 하고 긍정적인 간계가 수립되도록 도와주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홍강의와 Greenberg, 1980)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은 우선 환자의 문제와 그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다 수용한다는 것이 첫째 조건이고(Axline, 1955) 그들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진정으로 인정해주는 태도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스스로의 잠재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Moustakas, 1973)등과 실제 치료적 상황에서 이러한 치료자의 태도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놀이정신치료 초기단계에 있어서 환아가 도달해야 할 단계가 있다(Coppolillo, 1987) 첫째는 환아가 이 session 동안 편안함을 느껴서 가장 생산적으로 될 수 있어야 한다 치료자가 직접적으로 환아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더라도 환아가 불안감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치료자는 환아가 하는 행동이나 말에 대해 별을 가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주고, 관심, 존경, 공감을 하면 환아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다 두번째 단계는 일방적이 아닌 쌍방적인 의사소통이 되도록 도와준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처음 몇분 동안만 창피해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른과 놀이를 하거나 이야기하는 것이 신나고 즐거운 일이란 것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종종 치료자들은 이 첫 몇분간을 건디지 못하고 환아의 표현을 도와준다고 하면서 종이와 크레파스를 드리밀거나 장난감을 제시한다. 이것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고 일단 기다려 주는 것이 좋다 세번째 단계는 환아가 치료자와 치료적 동맹을 획득하는 단계다 아이들과의 치료적 동맹은 어른의 경우처럼 공고하지는 않다 매 문제가 생길때 마다 다시 다져주는 것이 필요하다 네번째 단계는 환아의 나이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환아가 자신의 문제가 외부에서 보다는 내적인 것에서 생긴다는 것을 인식하는 단계다 치료초기의 여러 단계가 끝날무렵에는 환아가 '치료를 받고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는 환아와 치료

자가 서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말, 상징 등을 통해서 찾는다 이 다섯단계들의 기간은 환자의 문제가 무엇이나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치료 초기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관계형성이라는 것은 이런 긍정적인 신뢰에 찬 관계가 중반기나 후반기에 이르러서 본격적으로 달성해야 될 궁극적인 문제해결과 치료효과에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홍강의와 Greenberg, 1980) 말하자면 치료적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지적인 통찰이나 해석만으로 결코 문제 해결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치료초기에는 아무리 유혹적이고 멋진 역동을 나타내주는 놀이가 일어난다 해도 이것은 치료자의 정보로써 수용되고 기억되어야 할 것이지 이것에 대하여 직접적인 comment와 해석은 피하는 것이 원칙이며 같은 놀이라 해도 그것을 좀더 관계수립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서 본 증례에서 처럼 환아가 승부 게임을 치료자와 하자고 하고, 지면 싫어하고, 이기면 좋아하고, 속임수 등 어떻게 해서라도 치료자를 이길려하는 행동을 보이는 수가 있는데 이때 치료자 자신도 초기부터 승부나 게임의 규칙에 얽매어서 환아와 언쟁을 하고 싸움을 한다면 이는 매우 반치료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게임을 통하여 치료자는 환아와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즉, 승부가 문제가 아니고 치료자와 환자가 같이 시간을 보내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며 환아가 지진, 이기진 간에 환아를 받아들이고 인정해 준다는 태도가 중요하고 이를 통하여 긍정적인 관계수립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게임은 치료 중반기나 후반기에는 환아의 규칙에 대한 태도, 치료자와의 진정한 승부의 매개체로서 사용될 수 있다

놀이가 진행되다가 갑자기 중단되는 경우 즉 놀이중단(play disrupton)은 항상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는데 치료적 중단이 어느 때에 일어나는 가와 그 선행되는 사건 내용등을 살펴봄으로써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 치료중단은 가장 이상적인 놀이치료 상황에 있어서는 놀이의 내용과 자신의 내부의 갈등이 너무 급격하게 의식의 세계로 나올때 불안의 정도가 심해져서 이를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꿈의 중단에서와 같이 꿈의 내용이 정서적으로 너무 다루기 힘들어서 깨어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고 놀이

중단 전후의 놀이내용과 역동을 잘 살펴봐야 한다 놀이중단은 또한 치료자가 너무 간섭을 많이하거나 치료자가 너무 가까이 다가가서 불편하게 느껴질 때 일어날 수 있다 또한 치료자가 흔히 범하는 잘못으로써 놀이의 내용이 현실에서의 환자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이야기해 줄때 이것을 즉각적으로 놀이내 내용을 현실과 결부시켜 해석하려고 할때 놀이의 중단이 일어난다고 할 수가 있다 따라서 놀이중단은 환자 자신 내부에서 일어나는 요인과 치료자의 성급함 또는 불필요한 개입 및 치료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 가깝게 느껴지거나 여기에서 피하려고 하는 치료자의 부적절한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다

본 증례에서 전체적으로 볼때 매우 인상적인 것은 치료초심자의 여러가지 미숙과 오류와 당황에도 불구하고 환아는 치료자와 매우 긍정적인 관계를 수립할 수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초기에서 우리가 흔히 관찰할 수 있는 증상의 호전,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호전등을 볼 수가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많고 진정한 의미의 치료적인 효과는 중반기에 들어서서 자신의 중요한 내면적인 갈등과 부모와의 관계가 해소되고 다시한번 자기가 달려가야할 발달피도에 올라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홍강의와 Greenberg, 1980) 본 놀이치료경과를 통해 볼때 Haworth(1990)이 말한 것처럼 ‘아이들은 사람이 말하는 내용 자체보다는 말을 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 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치료가 종결된 뒤에 살펴볼 때 이 환아에 있어서 치료자의 단순히 자신에게 놀이장을 제공해주는 주인역할, 간섭 많이 하는 사람으로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세번째 놀이치료시간 무렵부터 치료자를 독립된 개체로 생각한 것 같다 여기서도 치료자가 여러 실수를 했지만 환아가 좋아질 수 있었던 것은 ‘여러가지 역동적인 해석, 다양한 기술보다는 관계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말한 Allen(1934)이 옳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치료초기에 놀이치료의 기법과 과제만을 다루고 있으나 이것이 앞으로 중반기나 후반기 놀이치료의 기반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일단 초기 치료의 과제인 치료적 관계가 성립된 후에야 다음의 치료단계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본 증례에서도 마지막 시간에 환아는 콜라를 밖에 나가서

먹겠다 그리고 치료자는 안된다의 줄다리기와 힘의 겨룸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치료의 제2단계로 들어가는 과정으로써 치료자를 실험해 보고 과연 이 치료자가 자기를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해주는지를 확신하려는 노력임을 볼수 있다 이런 단계가 지나면 이 환자의 주 문제인 어머니와의 갈등과 아마도 부모와의 삼각관계등이 oedipal theme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된다 놀이의 전개와 매 시간 놀이 과정을 살펴볼 때 환아들은 자신의 발달 단계를 밟아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치료자들은 환자의 이런 면들을 잘 관찰하여 그것에 맞는 치료기법을 적용하고 다음 발달단계로 환아가 순조롭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치료 과정 중과 수정된 환경내에서 성공적으로 발달 단계를 재 경험하면 아이는 과거에 실패했던 발달단계를 성공적으로 회복하여 앞으로 순조롭게 자랄 수 있을 것이다(홍강의와 Greenberg, 1980)

이상에서 놀이치료 초기에 일어난 여러가지 현상들과 놀이치료적 기법과 과정을 살펴보았는데 이를 통해서 놀이치료를 배우는 과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신치료도 그렇지만 놀이정신치료는 더욱이 실제적인 놀이치료의 내용과 과정을 자세히 수련자가 기술하고 이를 지도 감독받을 필요가 있다 책이나 worksoop을 통해서 이론적으로만 배운 놀이치료가 실제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적절하게 개인적인 혹은 집단적인 supervision 없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놀이정신치료를 하는 사람은 이미 경험이 풍부하고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supervisor로부터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적어도 1년내지 2년 이상의 수련과정을 거쳐야 제대로 놀이치료를 할 수 있는 치료자로서 성장 하리라고 본다

VI. 요약

정서적인 문제로 갑자기 산만하고 공격적인 문제를 보였던 8세된 국민학교 남아의 놀이치료 내용과 이에 대한 집단 지도·감독(supervision)을 자세히 기술함으로써 놀이치료 초심자가 초기 놀이치료에서 경험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과

과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놀이치료 초기에 초심치료자가 흔히 범하는 잘못된 치료자 자신의 불안이나 성격적 특성 때문에 놀이를 환아가 선택하는 방향으로 보다는 자신에게 의미있는 내용으로 이끌려하고, 너무 적극적이거나 무반응, 파잉간섭, 파잉 및 부적절한 해석, 현실과의 직접적 연계시도이다 놀이치료 초기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치료자가 환아와 긍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임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환아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며, 환아가 이끄는 방향으로 놀이가 일어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치료자와의 관계를 통해 수정된 발달경험을 함으로써 문제와 갈등이 해결될 수 있다는 확신을 전해주어야 한다 치료자는 놀이치료의 초기에는 모든 노력을 관계형성을 이루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References

- 홍강의·조수철(1984) : 놀이의 기능과 의미 정신의학 8
- 홍강의·Greenberg LM(1980) : A developmental Approach to teaching and practicing child psychotherapy. 정신의학 4
- Axline VM(1955) . Play therapy procedures and results Amer J Orthopsychiat, Vol 25 pp618-625
- Bowlby J(1969) . Attachment and Loss, Basic Books, New York pp45-62
- Coppollilo HP(1987) : Psychodynamic psychotherapy of the children-Introduction to the art and the techniques,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Inc Madison pp235-264
- Erikson EH(1963) :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pp247-274
- Freud A(1965) : The concept of developmental lines . Normality and pathology in childhood, A Freud New York '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pp62-92
- Haworth MR(1990) : Therapeutic principles and preparatory procedures ' A child's therapy-hour by hour, M Haworth .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Inc Madison, Connecticut pp11-34
- Moustakas C(1973) : Children in Play Therapy, Jason Aronson pp1-9

TASKS AND TECHNIQUES IN THE INITIAL PHASE
OF PLAYPSYCHOTHERAPY ILLUSTRATED
BY GROUP SUPERVISION PROCESSES

Kang-E M Hong, M.D., Ph.D, Min Sook Park, M.D., Min Nam, M.D
Division of Child-Adolescent Psychia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Children's Hospital

A 8 year old boy with problems of hyperactivity, impulsivity recieved playpsychotherapy. Through the detailed examination of their contents and group supervision of play therapy session, common mistakes novice therapist make frequently and tasks in the initial phase of play psychotherapy are illustrated Therapist's personality and anxiety frequently interferes therapeutic processes Commom mistakes therapist makes during initial phase of play therapy are ; therapist's over-enthusiasm, overinvolvement or non-responsiveness, premature or inappropriate interpretation and direct connection of play theme to reality. It is utmost important for the therapist to make positive and trusting relationship with the patient in the initial phase of the therapy In order to do so therapist must accept the patient as he is, permit the patient takes his leads. And as a result, the patient can go through corrected devepolmental experience. In conclusion, it is a therapist's main task to establish relationship

KEY WORDS Initial phase of playpsychotherapy · Therapeutic alliance · Emotionally · Disturbed child